

광남일보 드림리더 14기, 한빛원전 견학·문화 탐방

원우 운영 상무지구 어나더키친서 친교의 시간도

골프대회·일본 해외여행 앞두고 화합·결속 다져

제14기 광남일보 드림리더 아카데미 원우 30여 명이 지난 8일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이하 한빛원전)를 방문해 원자력 발전 현장을 둘러보고 문화탐방을 진행했다.

원우들은 이날 오전 상무지구를 출발해 오전 9시 40분께 영광 불갑사를 방문했다.

아직 꽃망울이 남아 있는 상사화를 감상하며 가을 정취를 만끽한 뒤 범성포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한빛원전으로 이동했다.

본격적인 견학은 제14기 원우인 강성권 한빛원전 지역협력부장의 안내로 진행됐다.

원우들은 한마음공원 내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된 36홀 규모의 한빛원자력파크골프장을 둘러봤다.

이어 에너지광 홍보관에서 이윤석 홍보부 과장으로 부터 한국수력원자력과 한빛원전의 현황을 듣고 관련 영상을 시청했다.

원우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이 국내 전력의 약 30%를 공급하고, 한빛원전이 호남지역 전력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또 연간 462억원의 세금을 납부해 영광군 재정

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보였다.

이어 원자력발전소 6기 가운데 견학로가 마련된 제3발전소 6호기를 방문해 전력 생산 과정을 살펴보고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견학을 마친 원우들은 영광

백수해안도로를 둘러본

뒤 상무지구 어나더키

친으로 이동했다.

유다운 원우가

운영하는 이곳

에서는 견학에

참석하지 못한

원우들까지 합

류해 총 50여명

이 식사를 함께

하며 친교를 다졌

다.

행사를 주도한 박아라

미 문화탐방위원장은 식사

중간마다 게임과 행운권 추첨을 진행

해 분위기를 띄웠으며, 참석자 모두에게 선물을



▲ 제14기 광남일보 드림리더 아카데미 원우 30여명이 지난 8일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를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제14기 원우들은 한마음공원 내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된 36홀 규모의 한빛원자력파크골프장을 둘러봤다.

전달했다.

해의 출장으로 행사에 참

석하지 못한 허승업 원우회장은

전화로 “카카오톡에 올라오는 사진

을 보며 원우들이 즐겁게 하루를 보내는 모습

에 안심했다”며 “행사를 거듭할수록 원우들이

더욱 가까워지는 모습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

했다.

이어 “오는 10월 16일 열리는 회장배 골프대회와 11월 11일로 예정된 일본 해외여행에도 많은 원우가 참여해 제14기의 저력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김정숙 수석부회장이 생수와 모시임송편을, 이강호 원우가 보해 매실주를, 박아라미 원우가 칫솔을 제공했다. 광남일보 이승태 사장과 식사비 일부를 후원했으며, 원우들은 감사의 박수로 화답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빛고을의료재단 순천은병원(이사장 은광석)이 '2026년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순천은병원 ‘정신건강의 날’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국민 정신건강 증진·정신질환 인식 개선에 기여한 공로 인정

빛고을의료재단 순천은병원(이사장 은광석)이 ‘2026년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순천은병원은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내 피스앤킴코벤션 3층 로얄홀에서 열린 ‘2026년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순천은병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부권 거점 정신건강의료기관으로서 주민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신건강 건치료기법으로 노력했으며, 소외계층인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에 20여 년간 최선을 다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은광석 이사장은 “지역 정신건강의료복지의 질

점병원으로서 순천은병원의 역할을 강조하며, 지역주민의 행복한 삶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온 임직원들과 의료복지에 전념하는 의료진들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특히 의료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동부권 지역주민들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은광석 이사장은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서 의료·요양·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과 관련 협회 활동을 통해 40년간 지역사회 의료복지에 봉사해 왔다.

장예인, 정신의료, 노인복지, 노인의료 종합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 왔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농협중앙회, 함평서 농업인 파크골프대회 성료

농협중앙회장배 전남광주 예선전

농산물 홍보·금융사기 예방도 지원

농업인들이 파크골프를 통해 건강을 다지고 지역 간 화합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농협전남본부부는 최근 함평파크골프장에서 열린 ‘제2회 농협중앙회장배 농업인 파크골프대회 전남광주 예선전’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

농협중앙회가 주최하고 NH농산생국민운동본부와 대한파크골프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전남 605명, 광주 79명 등 모두 684명의 농업인 선수가 참가했다. 농축협 조합장과 관계자 등을 포함하면 행사 참여 인원은 800여명에 달했다.

선수들은 남녀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뉘어 일련 경기기를 펼쳐며 실력을 겨뤘다.

개막식에는 이광일 농협전남본부장과 이철호 농협광주본부장, 이석재 농협중앙회 이사를 비롯해 전남광주 지역 농축협 조합장과 파크골프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농업인의 건강 증진과 교류를 위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농업·농촌의 가치를 알리고 지역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는 자리로도 진행됐다.



농협전남본부부는 최근 함평파크골프장에서 ‘제2회 농협중앙회장배 농업인 파크골프대회 전남광주 예선전’을 개최했다.

경기장에서는 전남 쌀과 표고버섯 음료를 참가자들에게 제공하며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렸다.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참가자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해 우리 농산물에 대한 관심과 소비 확대를 유도했다.

특히 경기 중에는 ‘농심전심 버디존’을 운영해 스포츠와 나눔을 연계했다. 버디가 나올 때마다 쌀을 적립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선수들의 경기 참여가 지역사회 나눔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금융 지원도 함께 진행됐다. NH농협은행 전남본부 직원들과 대학생봉사단 N동원은 경기장을

찾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보이스포시 보상보험 무료가입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건강과 여가를 즐기는 동시에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금융 관련 지원을 제공했다.

이광일 농협전남본부장은 “이번 대회가 승패를 떠나 서로 격려하고 우정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협은 농심전심의 정신으로 농업인의 건강과 복지를 챙기고 활기찬 농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켄텍, 차세대 메모리 성능 제한 원인 규명

오상호 교수팀, 3nm 초박막 분극 변화 직접 관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가 차세대 메모리 정보 저장을 방해하는 원인을 원자 수준에서 규명, 고성능 메모리와 인공지능 반도체의 성능 개선을 위한 설계 기준을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켄텍은 오상호 교수 연구팀이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인 ‘강유전체 터널접합(FTJ)’에서 분극 전환을 방해하는 계면 결합의 작동 원리를 밝혀냈다고 11일 밝혔다.

강유전체는 외부 전압을 제거한 뒤에도 내부의 전기적 방향성인 ‘분극’이 남고, 전압을 가하면 그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물질이다. FTJ는 수 나노미터 두께의 강유전체를 두 전극 사이에 넣어 분극 방향에 따라 저장할 바꾸는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한다.

이 같은 특성은 전원이 꺼져도 정보를 유지하는 비휘발성 메모리뿐 아니라 저장과 연산을 같은 소자에서 수행하는 ‘로직 인 메모리’, 뇌 신경망의 작동을 모사하는 ‘뉴로모픽 소자’에도 활용

할 수 있다.

다만 강유전체층이 원자 몇 층 수준으로 얇아지면 전극과 맞닿는 경계면인 ‘계면’의 작은 결함이 분극 전환을 방해해 성능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은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 작동 중인 소자에서 어떤 결함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직접 확인되지 않았다.

연구팀은 백금 전극과 강유전체 산화물인 비튠타늄산화물, 전도성 산화물 전극을 차례로 쌓은 소자를 분석했다. 주사투과전자현미경 안에서 소자에 직접 전압을 가하면서 약 3nm 두께의 강유전체 내부에 있는 티타늄 원자의 미세한 위치 변화를 측정해 분극 방향을 원자층 단위로 추적했다.

분석 결과 위쪽 계면에서는 산소 원자가 빠진 ‘산소 공공’이 연속적으로 모여 분극을 한 방향으로 강하게 붙잡았다. 아래쪽 계면에서는 일부 원자가 다른 원자의 자리를 대신 차지한 결함이 주변 구조를 변형시켜 국소적으로 분극을 고정했다. 양



오상호 교수(왼쪽부터), 변진호 연구교수, 정지훈 박사

쪽 계면의 결함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동시에 작용하면서 반대 방향의 전압을 가해도 강유전체 전체의 분극이 완전히 뒤집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내부에는 서로 반대 방향의 분극이 맞닿는 경계가 남았다. 연구팀은 이를 ‘비대칭 이중 계면 고정 메커니즘’으로 규명했다.

오상호 교수는 “초박막 강유전체 소자에서는 재료 자체뿐 아니라 전극과 맞닿는 원자 몇 층의 상태가 성능을 좌우한다”며 “산소 결손과 원자 자리 결함을 줄이도록 계면을 설계하면 분극 방향을 더 안정적으로 바꾸고 메모리 성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대용 기자 sdw0918@

9월 ‘오피스 광주세관인’에 김형주 주무관

대중국 화객선 반입 해외 유명상품 위조물품 적발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강태일)은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군산세관 김형주 주무관을 ‘9월의 오피스 광주세관인’으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주무관은 대중국 화객선 반입 화물에 대해 적극적인 정보 분석과 정확한 우범 화물 선별을 통해 시가 약 7억원 상당의 해외 유명 상표 위조 물품을 적발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광주세관은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월 탁월한 업무 성과를 창출하고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오피스 광주세관인’을 선정하고 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광주본부세관은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군산세관 김형주 주무관(오른쪽)을 ‘9월의 오피스 광주세관인’으로 선정해 포상했다.